

보도 일시	2022. 1.26.(수) 조간 2022. 1.25.(화) 11:00	배포 일시	2022.1.25.(화) 06:00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0-6170)
		담당자	사무관 조흥준 (044-200-6047)

어촌마을 곳곳으로 자문단이 간다.

- 제4기 어촌뉴딜 자문단 공식 출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4기 어촌뉴딜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2월부터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매년 어촌뉴딜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그 동안 어촌뉴딜사업자문단은 사업대상지 250 개소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부터 사업추진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2019년 처음 구성된 제1기 어촌뉴딜사업 자문단은 지난해부터 하나 둘 완공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의 성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후포항(인천 강화) 뉴딜사업에서 지역 특산물인 밴댕이를 소재로 활용한 밴댕이 거리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올해 네 번째로 구성되는 제4기 어촌뉴딜사업 자문단은 총괄 조정가와 외부 전문가 등 총 91명으로 구성되며, 2022년 새로 시작되는 50개소의 사업 간 균형과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1권역) 경기, 인천, 충남, 전북 / (2권역) 전남(1지역) / (3권역) 전남(2지역), 경남, (4권역)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제주

총괄 조정가 16명(권역별 4명)은 담당 권역 내 대상지의 사업목표 설정과 실현방안 도출을 지원하고, 사업지 별 자문위원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

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자문위원 75명은 △수산·어촌·지역경제 △문화·관광·레저 △어항·항만 기술 △공동체·지역 콘텐츠 △건축·디자인·경관 △마케팅·홍보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목표 및 비전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대상지별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각 지역협의체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위원은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팀당 2개 사업지를 맡아 2022년 사업대상지 50개소에 25개 팀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투입되는 제4기 어촌뉴딜사업 자문단은 1기부터 3기까지의 자문단과는 다르게 신규사업지의 계획부터 사후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제 사업 완공지의 지역 특화사업과 거점시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맞춤형 자문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 직거래 매장이나 체험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지의 경우 고객 응대와 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문을 진행하고,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식자재위생관리, 요리연구, 홍보 등의 자문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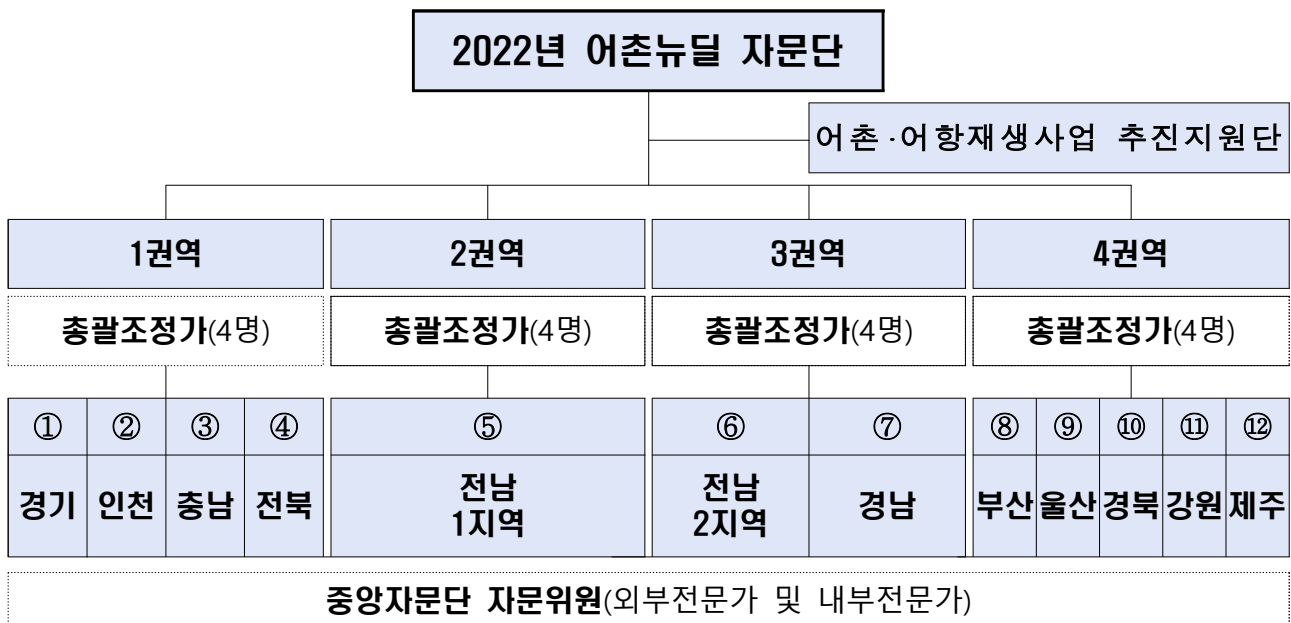
김태경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그동안 자문단은 250 개소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자문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었다.”라며, “이번 자문단은 새로운 사업 시행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대상지의 거점시설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 요

- (목적)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과 함께 어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재생 생태계 조성의 지원
- (사업현황) '22년도 어촌뉴딜사업 대상지(50개소)

□ 어촌뉴딜 자문단 구성

- (자문단 구성) 팀당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팀당 1~2개 사업 담당)
 - * 총괄조정가 : 4개 권역 총 16명으로 구성(권역별 4명으로 구성)
 - * 외부 자문위원 : 25개조 총 75명으로 구성(조당 3명으로 구성)
- (자문기간) '22년 2월 1일 ~ '22년 12월 31일
- 자문단 조직도



- * 전남(1지역) :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함평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 * 전남(2지역) :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 현장자문 시행 계획

○ (참석대상) 자문위원*, 담당 공무원, 위탁기관, 지역협의체 등

* 총괄조정가, 자문위원, 지원단 지원인력(필요 시)

○ 현장자문 시기

- 2021년도 사업대상지

구분	'21년도 사업대상지 현장자문
자문시기	시행계획 중간보고 전후(1회)
참석범위	'21년도 해당 권역 총괄조정가
주요 자문내용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실시설계 적정성 등

- 2022년도 사업대상지

구분	현장자문
자문시기	사업지별 자문요청 시기에 맞춰 진행(최소 2회)
참석범위	해당 권역 총괄조정가 및 해당 대상지 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사후 운영관리 계획과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 구체성 등

○ 자문단 역할

- (총괄 조정가) 담당 권역 내 대상지의 일관적인 사업목표 실현 방안 도출, 문제점 해결안 제시, 대상지별 자문위원 의견 조정·협의
- (자문위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대상지별 사업계획 검토, 지역협의체·주민 역량 강화 유도

참고 2

어촌뉴딜사업 자문단 활동 사진



▲ 지역협의체·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중인 자문단



▲ 지역협의체·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중인 자문단(로고 포함)